| 방위사업청 | 보 도 자 료 | 대변인실<br>☎ 02-2079-6020~2<br>www.dapa.go.kr |
|---|---|---|

| 보 도 일 시 | 이 자료는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| | 총 2 쪽 |
|---|---|---|---|
| 배 포 일 시 | 2021. 7. 15.(목) | 담 당 부 서 | 함정사업부 지원함사업팀 |
| 담 당 국 장 | 고위공무원 방극철(02-2079-5500) | 담 당 과 장 | 서기관 이종주(02-2079-5570) |

# 복합감응기뢰소해구 해군 인도, 기뢰제거 능력 향상

– 바닷속 기뢰를 제거하여 주요 항만과 해상교통로 보호 –

○ 방위사업청(청장 강은호)은 해군에 최초 도입되는 복합감응기뢰소해구의 첫 번째 세트가 7월 15일(목) 인도된다고 밝혔다.

※ 기뢰(機雷) : 적의 함선을 파괴하기 위해 물속이나 물위에 설치한 폭탄
※ 소해(掃海) : 바닷속에 부설된 기뢰를 제거하는 행동

○ 현재 해군이 운용하고 있는 기뢰탐색함(MHC, Mine Hunter Coastal)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음향 신호나 자기 신호에 반응하여 폭발하는 기뢰인 **감응기뢰를 제거**할 수 있는 **장비가 없어** 우리의 주요 항만 및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한 **장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**되어 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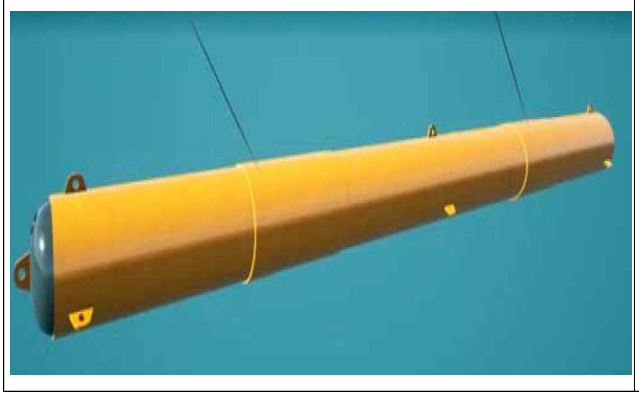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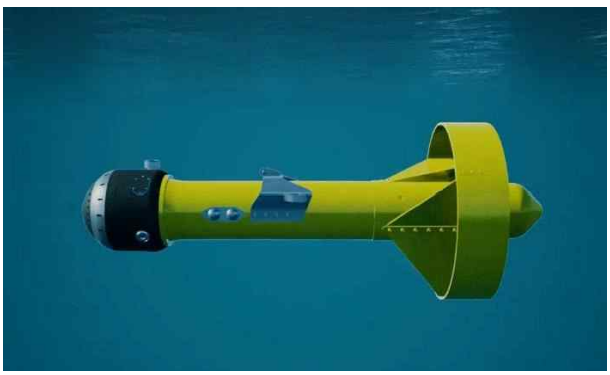
○ 이번에 해군에 인도된 **복합감응기뢰소해구는 자기 신호를 발생시키는 자기기뢰소해구**와 **음향 신호를 발생시키는 음향기뢰소해구**가 **복합적으로 구성**되어 있어 적의 감응기뢰 소해가 가능하다.

○ 특히, 기존의 기뢰탐색함에 **별도의 개조 없이 운용 가능**하며 작전해역의 조건에 따라 **다양한 종류의 함정 소음과 자기장을 방출**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.

○ 방위사업청 방극철 함정사업부장은 “**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장비**인 만큼 수락시험 수행방안 등 **도전적인 요소들이 많았지만**, 결국 **성공적으로 도입을 완료**하였다.”라며, “복합감응기뢰소해구 운용을 통해 해군의 **소해 능력이 더욱 향상**되어, 전시에 **주요 항만, 해상교통로 및 상륙해안 등을 보호하는 무기체계가 될 것**으로 기대된다.”라고 밝혔다.

○ 앞으로 방위사업청과 해군은 도입계획에 따라 ’22년 하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복합감응기뢰소해구를 전력화할 예정이다. <끝>.

## 〈 붙임 1 〉 복합감응기뢰소해구 형상

| 1세트 주요 구성 | |
|---|---|
| 자기기뢰소해구 | 음향기뢰소해구 |
|  |  |
| 자기 신호와 음향 신호를 발생시켜 바다에 설치된 감응기뢰를 제거하는 데 사용 | |